

# 지역 언론에 내재한 연고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연구

밀집 경향과 지형상의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권장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조교수)

---

본 연구는 지역 언론에 내재한 연고 네트워크 구조를 밀도와 지형상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언론에 내재한 연고 네트워크 구조의 지역별 비교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지역 언론사들에 내재한 연고에 따른 밀도 특성, 둘째, 지역 방송사 내의 언론조직과 신문사 조직 간의 연고에 입각한 밀도 비교, 세 번째, 지역 언론사 조직 구성원들의 연고에 따른 지형적 특성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민정부와 국민정부 시기에 지역의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일간지와 지역 방송사의 뉴스 조직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밀도 분석과 교차 분석, 그리고 대응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 내부 조직 구성원의 집중 경향을 교차분석과 밀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해당 신문사의 지역적 기반과 근접한 지역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문사와 방송사 공히 조밀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신문사가 방송사 내부의 뉴스 조직에 비해 집중 경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대응 분석을 통해 지역 언론사의 위치상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출신 지역에 있어서는 직위에 관계없이 위치상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출신 대학의 경우 이사진과 실무진 간의 위치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제어 : 지역 언론, 연고 네트워크, 밀도, 위치 분석

---

\* kweon@cu.ac.kr

## 1. 문제제기

최근 지역 언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제반 인프라가 중앙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 역시 중앙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 언론사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 논지이다(문종대·이강형, 2005). 대부분의 물질 토대가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언론사의 경우 재원 확보를 위한 재생산 구조가 무너지고 있으며, 지역 언론의 소비자 역시 지역 언론보다 중앙의 언론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언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의 시정, 유통망의 재정비, 지역 언론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 정부 정책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중앙 언론사에 비해 열악한 물질 토대, 협소한 소비 시장 등은 지역 언론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언론사의 한계가 비단 외부 환경적 요인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언론사가 과연 제 역할<sup>1)</sup>을 제대로 수행했는가에 대한 평가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그리고 지역 언론사에 대한 지역 주민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역 주민의 기호와 관계없이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뉴스를 선택, 전달하고 있으며, 껍데기만 지역신문이라는 지적과 지역 정치인이나 유지를 위한 신문이며, 지역 주민의 진정한 공론장인 경우는 드물었다는 지적(장호순, 2000)이 가장 대표적이다. 더 나아가, 선거 등 정치적 환경과 관련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배타적인 폐쇄성을 고무하거나 특수한 기득권의 영속화를 도모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1) 지역 언론의 역할과 관련한 주된 논의는 ‘중앙의 정책 수립에 대한 조력 혹은 비판’과 더불어 ‘지역의 특수한 뉴스 가치를 발굴’함으로써 주민의 단합과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 집중된다(서영진, 1995, p.71; 신영미, 1997 재인용).

도구로서도 평가받고 있다(문종대·한동섭, 1999 ; 김은환, 2001).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반으로 여론 형성이 이루어져왔다기보다는 지역 엘리트들과의 암묵적 합의 및 결탁을 통해 지역 여론을 주도해온 것으로 요약가능하다. 하지만, 다양한 매체가 급속하게 부각되고 있는 작금에 있어 지역 언론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역 주민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증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에 직면해 있다. 지역 언론은 소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언론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새롭게 여론 시장에 도입되는 다양한 매체와의 경쟁 또한 불가피하다. 지역 언론사는 과거와는 다른 외적 환경 요인에 직면한 것이다. 문제는 지역 언론사의 생존이 점차 어려워지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지역 언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는 점에 있다.

지역 언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회의적인 관점이 강하다. 지역 시장의 한계와 중앙 언론사에 대한 경쟁력의 부재가 대표적 이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 틀이 모색되고 있으나, 외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 지역 언론이 현재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적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 언론사의 내적 환경 요인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많은 연구자들이 의해 직, 간접적으로 지적되어져 왔던 지역 언론사 조직 내부의 연고 네트워크에 입각한 문화적 특성을 실증적 차원에서 조망함으로써 지역 언론사가 외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사 상호간의 직, 간접적 상호작용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한 궁극적인 목적인 셈이다.

## 2. 연고에 입각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관점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크게 권력으로서의 관점과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권력적 관점은 둘 혹은 그 이상의 행위자들 간의 비대칭적 관계에 입각한 상호작용을 전제한다. 노크(Knoke, 1990, p.7)는 권력을 구성하는 단위는 개인의 실체가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 확보된 지위(statuses)이며, 지위 간의 관계(relations)와 연결(connection)이 비대칭적 상호작용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 결과, 권력 구조는 수평적이라기보다 수직, 위계적 특징이 강하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 정점과의 위치적 근접성 여부가 권력에 입각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권장원, 2002/2004a). 이에 비해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관점에서는 거래 혹은 교환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시켜주고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교환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다양한 행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일종의 경제적 자원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사회적 자본 관점이 존재한다. 우선 교환 이론적 관점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거래가 지속될 경우 당사자 간에는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신뢰가 형성되고, 이러한 신뢰는 쌍방 간의 거래에 따른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상호과정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를 매개로 당사자들 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Coase, 1960). 이에 비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관점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관계 속에 용해되어 있는 자본재적 특성으로 파악한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관점에 대해서는 부르디외(Bourdieu, 1980)와 콜먼(Coleman, 1988/1990)의 논점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부르디외는 지배적 상징과 의미를 내면화한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을 기반으로 특권 계급을 강화하고 재생산해내는 과정으로, 반면 콜먼은 한 개인이 그 가운데 참여함으로써 특정 이익, 기회 등을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회 구조의 한 측면으로 사회적 자본을 묘사한다. 사회적 자본에 대해 부르디외는 사회적 정체성과 상호 호혜적 인식을 통해 포획된 계급적 자원으로, 콜먼은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연결을 통해 확보된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권장원, 2004b). 푸트남(Putnam, 1993)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를 공공재로 설정한다는 점에서는 콜먼의 관점과 동일하지만, 호혜성의 규범과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콜먼이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중립적으로 사용, 관계 구조의 내부화 효과에 치중한 한편, 푸트남은 특히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외부 효과)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김태영, 2001, 43~48쪽).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권력을 형성하게 해주는 주요 기제(mechanism)인 동시에 상호 거래에 따른 비용을 절감,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부가적인 자본을 창출하는 등 자본적 특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특정한 사회 혹은 조직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단서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2) 사회적 자본의 외부 효과는 관계 구조 밖에 있는 사람들을 관계구조 안으로 유인하는 유인효과를 가져온다. 외부 효과는 관계로부터 혜택을 누리기 위해 유사한 관계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모방효과를 유발시키며, 공익에 기여하는 긍정적 외부 효과와 집단 이기주의에 입각한 부정적 외부 효과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김태영, 2001, 49~50쪽).

## 2) 집단적 가치의 유지와 밀도 및 폐쇄성에 입각한 연고 네트워크의 특징

권력과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관점에 입각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 사회의 신뢰 구조에 토대하고 있다. 또한, 한 사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해주는 신뢰 구조의 특징은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흐름하에서 형성되어온 신뢰 구조의 특성이 각 사회의 네트워크 특징을 결정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개입하는 전통적, 역사적 차원에서의 신뢰 구조에 대한 특성 고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의 자율성이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통이 강한 구미의 개인주의적 사회와는 달리 한국 사회는 오래 전부터 집단과 공동체의 질서를 중시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해왔다(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저, 2004, 365쪽).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정서적 관계 형성 요인은 가족, 지역 등 소위 연고 요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주의적 가치관이었으며, 연령과 선후배 관계에 입각한 집단 내부의 위계가 인간관계의 질서를 유지해온 핵심적 기제였다. 물론, 서구의 경우에도 연고에 입각한 네트워크 구조가 존재한다. 하지만, 서구의 경우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 사회가 붕괴되고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생적, 정서적 신뢰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개인 능력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와 맞물려 연고주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감소한 반면, 한국은 충을 강조하는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효 사상을 중심으로 집단 내부의 질서를 중요시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해방 이후 서구의 자본주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연고주의가 와해되지 않았다(이훈

구, 2003, 189쪽). 오히려, 도시로 이동해 온 사람들이 소외감을 이기지 못해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기존의 연고주의를 동원, 연고에 입각한 강한 응집력을 지닌 집단을 만들어내었으며, 치열한 개인주의적 경쟁 체제 속에서 합리적인 이윤 추구 활동을 위해 연고 네트워크가 오히려 활성화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김진균, 1983, 189쪽 ; 최항섭, 2004, 267쪽).

연고를 매개로 한 집단의 형성은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달리 집합주의(collectivism)적 특징<sup>3)</sup>을 포함한다. 집합주의(collectivism)는 일차적으로 내집단<sup>4)</sup>을 중시하고, 개인의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태도 및 행동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훈구, 2003, 168~169쪽). 또한, 내집단 성원 간에 작용하는 호혜성 역시 강조하지만, 이는 계산된 교환이 아닌 단기적인 이타주의(Altruism)와 장기적인 자기이익 간의 조화로 규정한다(Bullen & Onyx, 1998). 내집단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며,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엄격한 분리가 존재한다는 점도 집합주의의 특징 중 하나이다(이훈구, 2003, 168~169쪽). 집합주의적 가치 기준에 입각해 볼 때, 연고 네트워크의 경우 내집단에 속해있는 행위자들의 경우 동일한 연고를 기반으로 동질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연령이나 선후배 등에 입각하여 상호 위계적 질서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연고 네트워크 집단과는 다소 폐쇄적인 상호작용 가능성을 안게 된다.

한편, 집단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와 폐쇄성(closure) 요인은 네트워크 자원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Bourdieu, 1983/1986 ; Coleman, 1990 ; Lin, 2002 ; Putnam, 1993). 우선 밀도가 높은

3) 집합주의 사회에서는 내집단을 부여(ascibe)되는 것으로(혈연, 종교, 촌락 또는 국가)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는 내집단은 획득된다(신념, 태도, 가치관, 그리고 직업상의 동일 집단). 이훈구, 2003, 170쪽.

4) 내집단이란 집단의 규범, 목표, 그리고 가치관이 개인의 행동을 조형(shape)하는 집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Triandis 1989/1995 ; 이훈구, 2003, 169쪽 재인용).

경우 자원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자원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데는 오히려 집단 간의 교량(bridge)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Lin, 2002, p.27). 그라노베타(Granovetter, 1973)가 제시한 '약한 연결의 강점(the strong of weak ties), 버트(Burt, 1992)의 구조적 빈틈(structural hole)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모임의 규모가 작고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중심인물이 거의 조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인물이 무언가 부탁을 했을 때, 연결망 내의 다른 성원들은 그를 성의껏 도와준다. 이 경우 집단 내부에서 중심인물과의 근접성이 집단 내부의 자원동원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최항섭, 2004, 276~277쪽). 내집단 중심의 네트워크는 집단의 유지와 재생산에 있어 밀도(density)와 중심과의 근접성(closure)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폐쇄성<sup>5)</sup> 요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질성에 입각한 상호작용(principle of homophily)은 공유된 감정이나 정서를 토대로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유지하고 방어하는 차원에서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감소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별적인, 그리고 더 풍부한 자원을 획득하는 차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관계에 입각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 역시 동일 연고에 속한 행위자들에게만 공유될 뿐, 전체 공동체로 확산되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게 된다.

### 3) 연고 네트워크의 기능과 문제점

사회적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만 놓고 볼 때, 연고 네트워크 역시 일반적

5) 부르디외가 상징하고 있는 계급적 관점에 입각한 사회적 자본은 계급에 입각한 정체성을 토대로 감정 및 정서를 공유, 계급 조직 내부의 결속 강화로 이어진다. 반면, 콜먼과 푸트남에 의해 제기된 공공재적 관점에 입각한 사회적 자본은 비록 내집단의 소속 여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외집단의 폐쇄성을 가정하지 않는다(권장원, 2004b).



인 사회적 네트워크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로부터 비롯된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개념은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관계 형성 요인인 연고에 입각한 네트워크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개념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연고 네트워크의 경우 가입 기준이 귀속적이거나 가입 대상이 제한적인 반면<sup>6)</sup>, 콜먼이나 푸트넘이 제시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가입기준이 성취적, 보편적, 확장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박찬웅, 1999, 60쪽). 전자의 경우는 집단 내부에 속해있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입각한 상호호혜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는 반면, 후자는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연고 네트워크는 유유상종 네트워크(homophily network) 혹은 계급적, 폐쇄적 특징을 지닌 사회적 자본인 반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일종의 공공재적, 개방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7)</sup>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sup>8)</sup>.

연고의 동원은 여러 가지 점에서 장점이 있다(송호근, 2001 : 236~238쪽, 윤민재, 2004, 147쪽). 조직의 분열을 개인적 신뢰와 과거의 동지애로 막아낼

- 6) 연고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대표된다. 혈연적 연고주의에는 ‘반영’ 즉 집단자존심의 동기가 내재해있고 지연적 편견에는 집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 지지’이다. 반면, 학연에서는 우정을 행사하려는 ‘의리 지킴’의 욕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이훈구, 2003, 184쪽). 결과에 따르면 지연보다는 학연의 경우 더 내집단 편애식으로 편견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연고인 경우 특히 더 심하다(이훈구, 2003, 185쪽).
- 7) 뉴튼(Newton, 1997)은 사회적 자본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이나 경쟁자라기보다는 공통의 시민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도구합리성에 기초한 이기적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에 입각한 공통의 이익과 기대를 갖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힘이라 주장한다(장원호, 2001, 135쪽 재인용).
- 8) 반면, 유석춘(2000, 205쪽)은 연고 네트워크와 사회적 네트워크 개념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연고 네트워크는 ‘악’이고, 사회적 네트워크는 ‘선’이라는 이분법적이고 선형적인 차원의 논의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고 네트워크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수 있으며, 조직 내부의 사사로운 갈등을 초월하여 각종 단체 내부의 집착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서열적, 권위주의적 요소로 인해 조직 활동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할 때 합리적인 해결의 가능성을 방해할 수 있으며, 집단이 특정 의도를 지닌 개인이나 소수에 의해 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연고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익을 희생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원동력으로 작용,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가능케 했던 일등공신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부패, 뇌물, 정경유착 등에 입각하여 공적 영역의 사유화를 초래함으로써 공동체 형성에서 필요로 하는 상호 신뢰 형성을 어렵게 만든, 그 결과, 동양 사회의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기 어렵게 하는 주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sup>9)</sup>

한편, 연고 네트워크는 사적인 차원에 입각하여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빈틈이 적은, 조밀한 네트워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성훈, 2004, 72쪽). 공적이고 공식적인 측면보다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한국 사회는 자원조직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고 조직의 영향력은 크다는 점을 밝힌 연구도 있다(한준, 2003, 72쪽). 문제는 연고 네트워크가 내집단 중심의 폐쇄적인 특징으로부터 벗어나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집단 간의 갈등이나 감정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sup>10)</sup> 연고 집단 내부에서는 상호 호혜에 기초한 신뢰의 원리가 작동하는

9) 연고주의가 개인의 차원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연줄집단을 둘러싼 더 큰 사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연고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김용학의 논의도 동일한 맥락이다 (김성훈, 2004, 65쪽).

10) 개방적 조직은 정보획득이 용이한 반면, 획득한 정보의 질은 폐쇄적 조직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폐쇄적 조직은 동질성을 띤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간의 정보는 중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의 양은 감소하지만, 획득하는 정보의 중복 확인으로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김태영, 2001, 60쪽 ; Granovetter, 1973).

반면, 연고 집단 외부에 대해서는 배제와 불신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대(대유석춘 외, 2000, 211쪽). 그 결과, 연고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내부 행위자가 타 연고 집단 내부 행위자와 감정적 대립이 부각될 경우 전체 집단 간의 갈등과 균열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비단, 공적 영역의 사유화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활동하는 하부 집단들 간의 갈등의 유발, 사회 분열을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김용학·손재석, 1988)는 점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 3. 연구목적

지방 분권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지역 언론은 자치 단체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인들이 지역의 정치나 행정의 감시, 비판이라는 지역 언론 고유의 사명을 다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소위 지연과 학연에 얽힌 연고 네트워크의 특징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김세철, 1993; 문종대·한동섭, 1999; 김은환, 2001; 박성현, 2004)과 물적 토대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이해관계가 개입하고 있다는 점(박성현, 2004) 등이 대표적 이유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불공정 거래나 뇌물 수수에 따른 처벌 등 정책적, 법적 차원에서 통제가 가능한 반면, 전자의 경우 정책적, 법적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를 안고 있다. 소위 정서적 요인으로 일컬어지는 전통적 차원에서의 비공식적 관계 형성 요인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계 형성 요인에 입각한 언론인들에 대한 분석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헤스(Hess, 1981)에 따르면, 1930년대에는 80%의 언론인들이 적어도 대학

교육을 받았으며, 1970년대 워싱턴 기자의 약 1/3이 일류대학 졸업생이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뉴스 미디어의 대표적인 표본을 추출하여 언론인들을 연구한 바 있는 위버와 윌허이트(Weaver & Wilhoit, 1986, p.22)는 미국 언론인들은 주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권’ 출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서 1960년대 인종 폭동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커너위원회>는 언론 집단의 사회적 배경이 그들의 뉴스 선택과 내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해 주었다. 소수집단의 견해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매스 미디어가 소수 집단 출신을 보다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McQuail, 2002).<sup>11)</sup>

기자 개인의 사회적 배경 내지 속성이 언론 생산물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oemaker & Reese, 1996)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언론인들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 언론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언론인 집단의 사회적 배경이 특정한 속성을 중심으로 강하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 ‘집단 사고(group thinking)’ 또는 ‘다수 심리(pack mentality)’를 유발, 언론사들 간에 상호 유사한 뉴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여론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Rogers, 1983, p. 275). 이런 점에서 볼 때, 밀도와 폐쇄성에 입각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은 기존의 자원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자원을 추구하고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 사고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지역 언론사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연고 네트워크의 특징들을 밀도와 위치 분석 등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지역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 지역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

11)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버와 윌 허이트(Weaver와 Wilhoit, 1986, p. 25)는 조직의 관행과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언론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뉴스의 가치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사소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여지기 어려운 조직 구조상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역 언론사들의 지연, 학연에 따른 밀도는 지역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지역 언론사 중에서 방송사 내의 언론조직과 신문사 조직에 내재한 연고 네트워크의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지역 언론사 조직 구성원들의 연고에 따른 지형적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4. 분석대상

본 연구는 지방 자치와 관련하여 지방분권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된 1990년대 이후, 특히, 문민정부와 국민정부 시기에 걸쳐 지역 언론사에 내재한 연고 네트워크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언론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분석 대상은 부산(부산, 국제), 대구(매일, 영남), 광주(광주, 무등), 대전(대전, 중도) 등 서울, 경기를 제외한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2곳의 일간지와 지역 방송사(KBS, MBC, 지역민방)의 뉴스 조직을 설정하였다. 비록 자료의 미비로 인한 부분적 누락이 있기는 하지만, 각 조직에 속해 있는 부장급 이상의 간부 총 654명을 대상으로 지연(출신지역)과 학연(출신대학)을 중점적으로 수집하였으며, 언론재단과 각 언론사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

<표 1>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대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총계	
		신문사	방송사	신문사	방송사	신문사	방송사	신문사	방송사	신문사	방송사
문민	이사진	13	8	12	12	17	10	11	9	53	39
	실무진	49	28	42	18	40	21	25	14	156	81
국민	이사진	13	10	9	13	14	10	14	9	50	42
	실무진	59	26	36	23	28	18	28	15	151	82

자료원 : 신문방송연감 각년호, 전국언론인명록 각년호, 한국언론재단.

### 5. 연구방법 : 밀도분석(density analysis)과 대응분석 (correspondence analysis)<sup>12)</sup>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은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도구 중의 하나로서 집단 내부의 밀도를 수치화한 밀도 분석(density analysis)과 지각 지도 구성을 기반으로 변수들 간의 내적 구조나 패턴을 2차원의 지도에 그림으로 표시해주는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방법이다. 이들 방법을 병행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지역 언론사의 연구 네트워크의 집중 정도와 지형상의 특성, 특히 지역 및 대학과의 위치적 근접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밀도 분석의 경우 한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관계의 응집정도를 분석한 수치를 토대로 하며, 한 네트워크의 밀도는 네트워크 점간 존재하는 연결이 그 점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연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다(손동원, 2002).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

12)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밀도와 대응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데이터에는 부분적으로 누락된 데이터가 존재하며, 그 결과 출신 지역에서 총 644명, 출신대학에서 646명의 데이터가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되었다.

면,  $\text{density}(\text{밀도}) = k/g(g-1)/2^{13)}$ 이며, 밀도 0은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밀도 1은 모든 점들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0과 1 사이에서 수치가 높을수록 밀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한편, 대응분석의 경우 각 개체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다차원 공간에 전환하여 공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들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기법이다(Wasserman & Faust, 1994; 박한우·남인용, 2004, 89쪽). 매트릭스 데이터에서 쌍(dyad)을 이루는 두 개체에 연결빈도가 높을수록, 두 개체는 다차원 공간에 가깝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자료 구성과 밀도 계산은 국내외 학계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많이 활용하는 윈도우용 UCINET 프로그램(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을, 분포를 보여주기 위한 교차분석과 위치상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위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6. 연구결과

### 1) 지역 연고 및 대학 연고에 따른 밀도 분석(density analysis)

#### (1) 지역 연고에 따른 밀도 분석

우선 지역 연고에 입각한 밀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지역별 밀도 경향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방송사보다 신문사의 밀도 경향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참조).<sup>14)</sup>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문사의

13)  $k$ 는 네트워크 내 존재하는 라인의 수이며,  $g$ 는 네트워크 내 존재하는 점(노드)의 개수를 의미한다. 분모인  $g(g-1)/2$ 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최대한 가능한 라인(관계)의 수치를 의미한다(손동원, 2002, 58쪽).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호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밀도를 측정하였다.

14) 신문사와 방송사 간의 조사 대상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계학적인 차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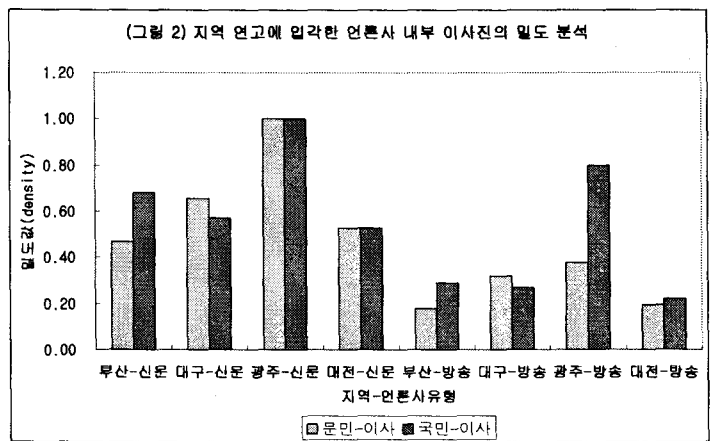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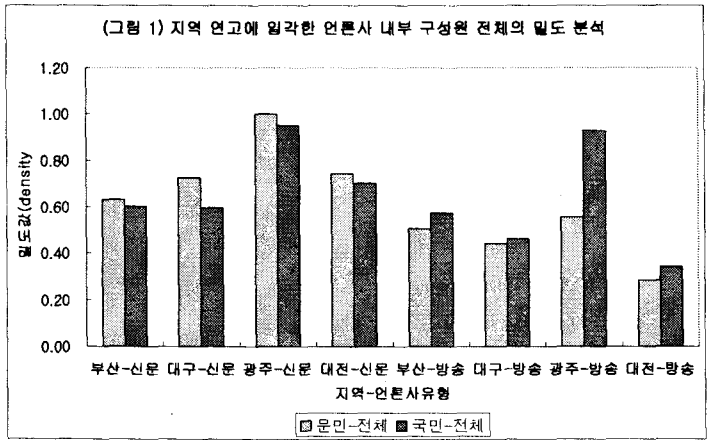
&lt;표 2&gt; 지역 연고에 입각한 밀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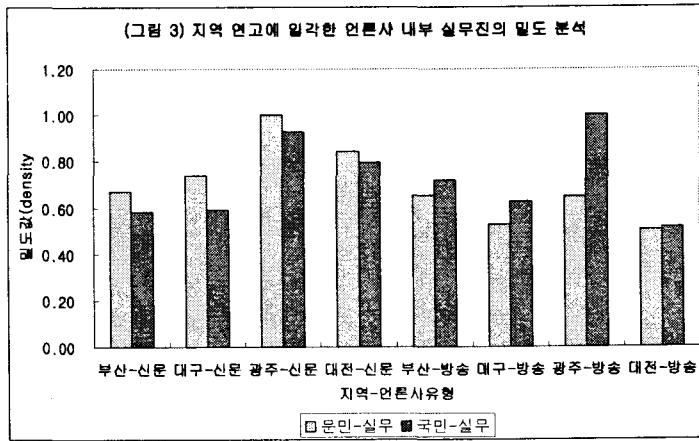
			부산 (N=206)		대구 (N=165)		광주 (N=158)		대전 (N=125)	
			신문사 (N=134)	방송사 (N=72)	신문사 (N=99)	방송사 (N=66)	신문사 (N=99)	방송사 (N=59)	신문사 (N=78)	방송사 (N=47)
전체 (N=654)	문민 (N=329)	밀도값	.6328	.5062	.7250	.4433	1.0000	.5570	.7429	.2846
		표준편차	.4820	.5000	.4465	.4968	.0000	.4967	.4371	.4512
	국민 (N=325)	밀도값	.6028	.5730	.5973	.4635	.9512	.9286	.7027	.3439
		표준편차	.4893	.4946	.4905	.4987	.2154	.2575	.4571	.4750
이사진 (N=184)	문민 (N=92)	밀도값	.4697	.1786	.6545	.3182	1.0000	.3778	.5273	.1944
		표준편차	.4991	.3830	.4755	.4658	.0000	.4848	.4993	.3958
	국민 (N=92)	밀도값	.6818	.2889	.5714	.2692	1.0000	.8000	.5275	.2222
		표준편차	.4658	.4532	.4949	.4436	.0000	.4000	.4992	.4157
실무진 (N=470)	문민 (N=237)	밀도값	.6726	.6554	.7398	.5294	1.0000	.6476	.8433	.5055
		표준편차	.4693	.4752	.4387	.4991	.0000	.4777	.3635	.5000
	국민 (N=233)	밀도값	.5850	.7200	.5921	.6285	.9286	1.0000	.7963	.5165
		표준편차	.4927	.4490	.4915	.4832	.2575	.0000	.4028	.4997

경우 문민정부에서 국민정부로 교체되면서 밀도 경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방송사의 경우 국민정부에 들어오면서 밀도 경향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 지역 방송사의 경우 밀도의 증가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 참조). 한편, 직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실무진에서 나타난 밀도 경향은 앞서 언급한 전체적인 밀도 경향과 유사하지만, 이사진의 경우 특히, 부산 지역의 신문사와 대구 지역의 방송사가 전체적인 밀도 경향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문민정부에 비해 국민정부에 들어와 이사진 및 실무진 공히 높은 밀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그림 3 참조).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표 2)에서 제시한 표준편차와 함께 살펴보았을 때, 그 경향성은 언급할 수 있다.







한편, 지역 언론인들의 출신지역별 분포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체로 지역별 신문사와 방송사 공히, 해당 언론사가 속해 있고, 언론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적 범위에 입각하여 언론사 내부 종사자들의 출신 지역에 입각한 분포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출생한 지역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의미하는 셈이다. 언론사 별로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신문사의 경우 ‘문민/부산/신문사 이사진’에서의 경북 출신 분포, ‘국민/대구/이사진 및 실무진’에서 경남 출신 분포, ‘문민-국민/대전/신문사 이사진’에서 경북 출신 분포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리적 근접성과 교통 여건 등 물리적 차원에서의 교류 환경이 인적 자원의 상호 교류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한편 방송사의 경우는 특히 이사진을 중심으로 서울 출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전과 부산에 있어 그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5)</sup>

15) 방송사의 경우 신문사와는 달리 지역별 이사진의 수가 많지 않으며, 사장진의 경우 지역에서 선발되는 것이 아닌 본사에서 파견을 보내는 것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표 3> 지역 연고에 따른 분포

정권	지역	유형	직위	지역 언론인의 출신 지역별 분포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북	충남	강원	서울	경기	기타
문민정부	부산	신문	이사	23.1	38.5	-	23.1	-	-	-	7.7	-	-	-	-	-	7.7
			실무	30.6	51.0	2.0	8.2	-	2.0	2.0	-	-	2.0	-	2.0	-	-
		방송	이사	37.5	-	-	-	-	-	-	-	12.5	12.5	-	25.0	-	12.5
			실무	25.0	50.0	3.6	7.1	-	-	-	-	-	-	-	3.6	-	10.7
	대구	신문	이사	-	-	33.3	41.7	-	-	-	-	-	-	-	8.3	-	16.6
			실무	-	9.5	28.6	57.1	-	-	-	-	-	-	-	-	-	4.8
		방송	이사	-	25.0	25.0	25.0	-	-	-	-	-	-	-	16.7	8.3	-
			실무	-	22.2	33.3	33.3	-	-	-	-	-	-	-	5.6	-	5.6
	광주	신문	이사	-	-	-	-	35.3	47.1	17.6	-	-	-	-	-	-	-
			실무	-	-	-	-	20.0	77.5	-	-	-	-	-	-	-	2.5
		방송	이사	-	-	-	-	50.0	10.0	-	-	10.0	10.0	-	10.0	10.0	-
			실무	-	-	-	4.8	23.8	47.6	9.5	-	4.8	-	-	-	4.8	4.8
대전	신문	이사	-	-	-	18.2	-	-	-	18.2	18.2	36.4	-	-	-	9.1	
		실무	-	-	-	4.0	-	-	4.0	44.0	16.0	32.0	-	-	-	-	
	방송	이사	-	11.1	-	-	-	-	22.2	-	-	11.1	-	33.3	11.1	11.1	
		실무	-	-	-	7.1	-	-	-	21.4	42.9	7.1	7.1	7.1	7.1	-	
국민정부	부산	신문	이사	30.8	46.2	-	7.7	-	-	7.7	-	-	-	-	-	-	7.7
			실무	33.9	40.7	5.1	13.6	-	1.7	-	-	-	1.7	1.7	1.7	-	-
		방송	이사	30.0	20.0	-	10.0	-	-	-	-	-	10.0	-	30.0	-	-
			실무	38.5	46.2	-	11.5	-	-	-	-	3.8	-	-	-	-	-
	대구	신문	이사	-	22.2	33.3	33.3	-	-	-	-	-	-	-	-	-	11.1
			실무	-	19.4	27.8	47.2	-	-	-	-	-	-	2.8	-	-	2.8
		방송	이사	-	38.5	15.4	23.1	-	-	-	-	-	-	7.7	7.7	7.7	-
			실무	-	17.4	39.1	39.1	-	-	-	-	-	-	-	4.3	-	-
	광주	신문	이사	-	-	-	-	50.0	35.7	7.1	-	-	-	-	-	-	7.1
			실무	-	-	-	-	25.0	71.4	-	-	-	-	-	3.6	-	-
		방	이사	-	-	-	-	20.0	60.0	10.0	-	-	10.0	-	-	-	-
			실무	-	-	-	-	-	-	-	-	-	-	-	-	-	-

보인다.

대전	송	실무	-	-	-	-	38.9	55.6	5.6	-	-	-	-	-	-	-
	신문	이사	-	-	-	21.4	-	-	-	28.6	14.3	28.6	-	-	7.1	-
		실무	-	-	-	7.1	-	-	3.6	35.7	21.4	32.1	-	-	-	-
	방송	이사	-	11.1	-	-	-	-	22.2	-	-	22.2	-	44.4	-	-
		실무	-	-	-	-	-	13.3	-	26.7	13.3	26.7	-	13.3	-	6.7

\* 자료원 : 신문방송연감 각년호, 전국언론인명록 각년호, 한국언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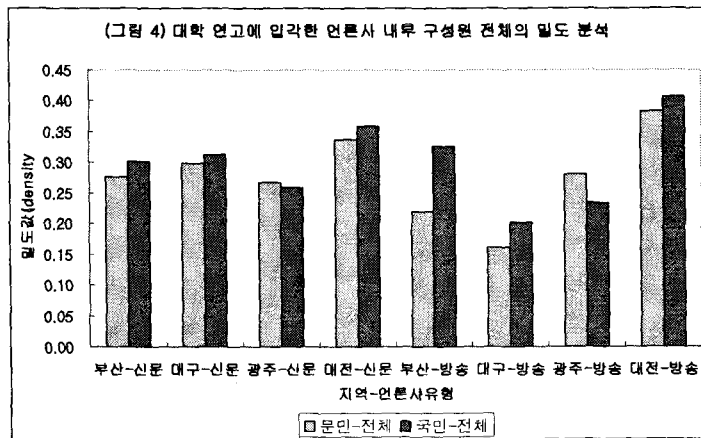
## (2) 대학 연고에 따른 밀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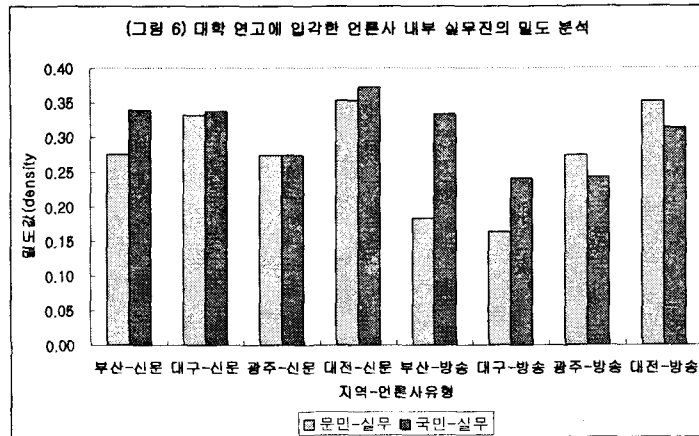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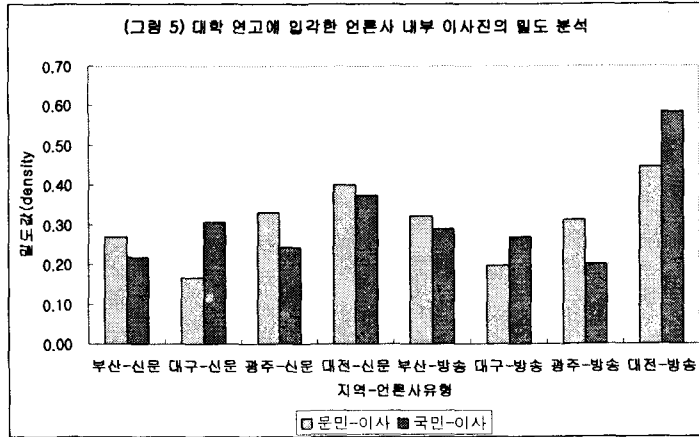
대학 연고에 입각한 밀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문사와 방송사 공히 대전 지역에서의 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실무진을 중심으로 방송사보다 신문사의 밀도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sup>16)</sup>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대전 지역의 경우 국민정부에 들어와 신문사 및 방송사 공히 대학 연고에 입각한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광주 지역의 신문사와 방송사의 경우 경미하나마 밀도가 유사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그림 4 참조). 한편, 직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이사진의 경우 특히, 대구 지역의 신문사와 방송사, 대전 지역의 방송사 이사진을 제외하고는 대학 학연에 따른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밀도가 증가하는 전체적인 경향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5 참조). 반면, 실무진의 경우 광주와 대전 지역의 방송사를 제외한 언론사의 경우 국민정부에 들어와 밀도가 유사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6 참조).

16) 신문사와 방송사 간의 조사 대상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계학적인 차이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표 4)에서 제시한 표준편차와 함께 살펴보았을 때, 그 경향성은 언급할 수 있다.

(표 4) 대학 연구에 입각한 밀도 분석

			부산 (N=206)		대구 (N=165)		광주 (N=158)		대전 (N=125)	
			신문사 (N=134)	방송사 (N=72)	신문사 (N=99)	방송사 (N=66)	신문사 (N=99)	방송사 (N=59)	신문사 (N=78)	방송사 (N=47)
전체 (N=654)	문민 (N=329)	밀도값	.2766	.2190	.2984	.1609	.2669	.2808	.3365	.3834
		표준편차	.4473	.4136	.4576	.3675	.4423	.4494	.4725	.4862
	국민 (N=325)	밀도값	.3016	.3261	.3129	.2016	.2585	.2336	.3589	.4058
		표준편차	.4590	.4688	.4637	.4012	.4378	.4231	.4797	.4910
이사진 (N=184)	문민 (N=92)	밀도값	.2692	.3214	.1667	.1970	.3309	.3111	.4000	.4444
		표준편차	.4436	.4670	.3727	.3977	.4705	.4629	.4899	.4969
	국민 (N=92)	밀도값	.2179	.2889	.3056	.2692	.2436	.2000	.3736	.5833
		표준편차	.4129	.4532	.4606	.4436	.4292	.4000	.4838	.4930
실무진 (N=470)	문민 (N=237)	밀도값	.2755	.1825	.3322	.1634	.2753	.2749	.3533	.3516
		표준편차	.4468	.3863	.4710	.3697	.4467	.4464	.4780	.4775
	국민 (N=233)	밀도값	.3390	.3333	.3378	.2411	.2751	.2426	.3730	.3143
		표준편차	.4734	.4714	.4730	.4278	.4466	.4287	.4836	.4642





한편, 지역 언론인들의 출신대학별 분포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전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역별 신문사와 방송사 공히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 분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사·직위별로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신문사 이사진의 경우 부산은 지역 국립대 출신이, 대구는 지역 사립대 출신의 분포가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광주와 서울에서 사립대를 졸업한 인사들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문사 실무진의 경우는 특히 지역의 국립대 출신 인사들의 분포가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방송사의 경우 이사진은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보다, 가령 대구 지역은 서울대, 대전은 서울 사립대 등 서울 지역 대학 출신들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방송사 실무진은 부산과 대구 등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 출신 분포가 높은 반면, 광주의 경우 문민정부에서는 서울 사립대 분포가, 국민정부에서는 지역 국립대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전 지역의 경우 신문사 실무진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분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경기 지역과의 지리적 근접성이 지역 언론사 조직 내부의 인적 구성에 입각한 밀도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lt;표 5&gt; 대학 연고에 따른 분포

정권	지역	유형	직위	지역 언론인의 출신 대학별 분포						
				자료 없음	지역 국립대	지역 사립대	서울대	서울 사립대1	서울 사립대2	기타
문민정부	부산	신문	이사	-	38.5	7.7	15.4	15.4	23.1	-
			실무	-	51.0	20.4	4.1	4.1	20.4	-
		방송	이사	-	37.5	12.5	-	25.0	25.0	-
			실무	-	25.0	28.6	7.1	14.3	17.9	7.1
	대구	신문	이사	-	25.0	41.7	16.7	-	8.3	8.3
			실무	-	42.9	38.1	-	7.1	11.9	-
		방송	이사	-	16.7	16.7	41.7	8.3	16.7	-
			실무	-	16.7	50.0	11.1	11.1	11.1	-
	광주	신문	이사	-	17.6	23.5	5.9	29.4	23.5	-
			실무	2.5	32.5	45.0	2.5	-	15.0	2.5
		방송	이사	-	30.0	10.0	20.0	10.0	30.0	-
			실무	9.5	14.3	28.6	4.8	4.8	38.1	-
대전	신문	이사	-	18.2	-	9.1	27.3	45.5	-	
		실무	-	56.0	8.0	4.0	4.0	28.0	-	
	방송	이사	-	11.1	-	22.2	22.2	44.4	-	
		실무	-	7.1	28.6	-	-	57.1	7.1	
국민정부	부산	신문	이사	-	23.1	23.1	15.4	15.4	23.1	-
			실무	-	59.3	16.9	5.1	3.4	15.3	-
		방송	이사	-	30.0	10.0	10.0	10.0	40.0	-
			실무	3.8	46.2	15.4	3.8	11.5	19.2	-
	대구	신문	이사	-	11.1	55.6	-	11.1	11.1	11.1
			실무	2.8	44.4	27.8	-	8.3	16.7	-
		방송	이사	-	7.7	15.4	30.8	23.1	23.1	-
			실무	-	26.1	47.8	13.0	4.3	8.7	-
	광주	신문	이사	7.1	21.4	28.6	7.1	-	35.7	-
			실무	-	50.0	28.6	3.6	-	10.7	7.1
		방송	이사	-	20.0	20.0	20.0	30.0	10.0	-
			실무	5.6	38.9	27.8	5.6	-	22.2	-
대전	신문	이사	-	28.6	-	7.1	14.3	50.0	-	
		실무	3.6	57.1	3.6	3.6	7.1	25.0	-	
	방송	이사	-	11.1	-	11.1	22.2	55.6	-	
		실무	-	13.3	26.7	-	-	53.3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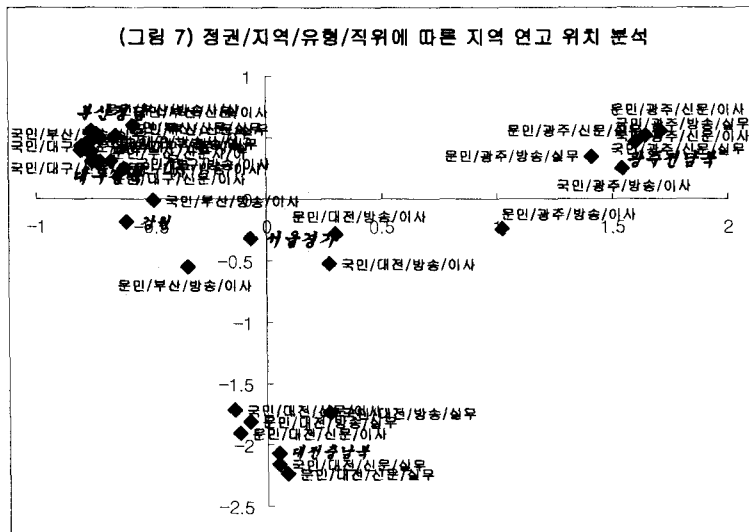
\* "서울사립대1"은 고려, 연세대등, "서울사립대2"는 그 외의 서울지역 사립대학을 의미.

\* 자료원: 신문방송연감 각년호, 전국언론인명록 각년호, 한국언론재단.



2) 지역 연고 및 대학 연고에 따른 대응 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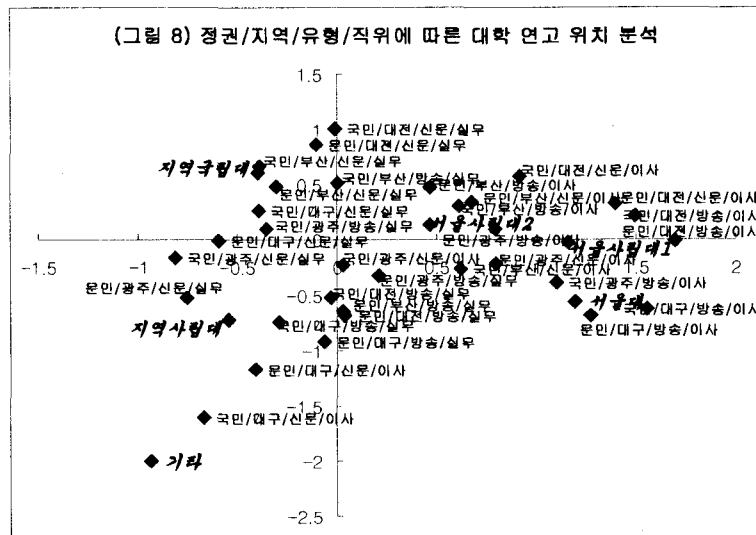
정권과 지역, 언론사 유형, 직위에 따라 지역 연고를 중심으로 대응 분석한 결과, 지역 언론사의 지역 연고에 따라 지역별 위치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7).<sup>17)</sup> 특히,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개 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언론사 조직의 경우 부산-대구로 대표되는 경상도 지역, 광주-전라 지역, 대전의 충청도 지역의 삼각구도(triangle composition)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앙에 서울경기가 포진하고 있어 서울경기 출신 인사들이 지역별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위치적 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방송사의 경우



17) 지역 연고에 따른 대응 분석 결과, 제1, 제2 좌표축에 대해 나타난 고유값은 1차원에서 39.4%, 2차원에서 31.6%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어 2차원 공간에서 총 71%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사진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경계를 넘어 서울경기 지역을 기반으로 X 중심으로 넓게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역 신문사와는 달리 방송사의 경우 본사에서 지역으로 임명해서 보내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지역적 정서와 더불어 회사 내부의 정서도 함께 고려된 결과로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정권과 지역, 언론사 유형, 직위에 따라 대학 연고를 중심으로 대응 분석한 결과, 이사진과 실무진 간의 위치적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sup>18)</sup>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무진의 경우 지역 국립대와 서울 사립대2, 그리고 지역 사립대를 중심으로, 이사진의 경우 대구 지역의 신문사 이사진이 지역 사립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



18) 대학 연고에 따른 대응 분석 결과, 제1, 제2 좌표축에 대해 나타난 고유값은 1차원에서 36.5%, 2차원에서 25.9%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어 2차원 공간에서 총 62.4%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 서울 사립대1, 2, 그리고 서울대에 근접하여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방송사의 경우 서울대와 서울 사립대1에 더욱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 7. 본 연구의 결과 및 의의, 그리고 한계

본 연구는 사회 속에서는 역사적 흐름 하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진 관계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연고에 의한 네트워크 특징이 보이지 않는 힘(*invisible power*)으로 작용, 사람들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지역 언론사의 네트워크 구조를 밀도와 위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밀도와 위치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각 지역 내부 언론사의 밀도가 특히 신문사를 중심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신문사와 방송사 공히 각 지역을 중심으로 조밀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위치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의 언론사가 2차원 공간의 외곽에 지역별로 정권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조밀하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출신 지역을 매개로 조밀하게 포진해 있다는 점은 지역의 정서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밀함으로 인해 지역 언론사 조직 내부의 차원에서는 연령 및 선후배 간의 연공서열에 따른 내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지역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닐 수 있다. 아울러, 지역 간 위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위치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을 매개로 우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 간 상호 교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언론기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밀도와 위치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한편, 대학 학연의 경우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민정부에서 국민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히, 이사진에 비해 실무진에서의 밀도 경향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상도 지역의 경우 지역 국립대와 지역 사립대, 광주와 대전 지역의 경우 지역 국립 및 사립대뿐만 아니라 서울에 소재한 사립대의 분포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위치 분석 결과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지역 언론사 실무진은 지역 국립대와 지역 사립대와 근접한 경향을, 지역 언론사 이사진은 서울 사립대와 서울대를 중심으로 포진하는 위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학연에 입각한 분석 결과, 이사진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실무진은 지역 대학 출신 등으로 비교적 명확한 위치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출신 대학에 입각한 언론사 조직 내부의 이사진과 실무진 간의 정서적 차이(gap)가 유발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출신 대학을 중심으로 실무진 내부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출신 대학에 입각한 선후배들 간의 암묵적인 내적 통제 및 담합의 문제 또한 유추해볼 수 있다.

출신 지역 및 대학에 따른 밀도 및 분포, 그리고 위치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역 언론사의 경우 지연과 학연을 매개로 해당 지역에서의 정서적 관계 형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밀도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언론인들 내부에 집단 사고(group thinking)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 언론사 중심의 공식적 위계가 연고를 매개로 형성된 비공식적 위계와 상호 혼재됨으로써, 공적 신뢰의 토대인 경쟁 원리 및 게임 법칙의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게 되며, 여론 형성 과정에서 출신 지역 및 대학에 입각한 선후배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비공식적 관계 구조가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밀도와 폐쇄성을 기반으로 지역 언론 전반에 걸친 집단 사고(group thinking)를 유발, 지역 언론의 다양성 및 차별화의 측면보다 지역

여론이 획일화, 편협화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sup>19)</sup> 지역 언론사 조직 내부에서 형성된 집단 사고(group thinking)가 지역적 정서를 대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언론과 지역의 엘리트 혹은 지역에서의 특정 연구의 지각 특성이 지역 주민의 정서인 것처럼 포장되어 언론 현상화 될 수 있음으로써 지역 내부의 통합과 변화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밀도와 폐쇄성 요인은 기존의 자원 유지에는 효율적이지만, 새로운 자원의 추구 및 확장에는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학문적 차원에서와 현실적 차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학문적 차원에서는 지역 언론사 조직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비공식적 차원에서의 제도를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지역 언론사 구조와 지역 언론사 종사자들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보다 실증적이고, 역동적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의식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비공식적 차원으로 치부되어져 온 지역 언론에서의 연구 네트워크의 실체를 경험적 차원에서 분석해봄으로써 이제까지 입소문에 근거하던 현실적 문제를 학문적 논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다는 점이다. 한편, 현실적 차원에서는 비단, 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 행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원인에 대한 기초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역 사회의 여론 형성 과정에서 정보 유통상의 왜곡 혹은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 제공은 물론 언론사 조직 내부의 행위 패턴이 변화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19) 대구지하철,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갈등, 제도적인 신뢰의 결핍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만연, 끼리끼리 문화의 극대화, 선거시 지역주의의 발동 등 위험사회의 표본처럼 되어버린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제도를 형성하는데 따른 신뢰와 도덕성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지 못한 제도의 실패에서 초래된 것임일 때, 2001, 106쪽).

원인을 구조적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출신 지역 및 대학 요인으로만 지역 언론의 비공식적 관계 요인의 단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역 언론 전반에 걸친 비공식적 행위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공식적 관계에 따른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비단 지역 및 학연뿐만 아니라 종교나 사모임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을 비롯하여 지역 언론사 내부 뉴스 룸에 입각한 체계적 과정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나의 연구 논문에서 다룰 수 있는 논의가 한정되어 있으며, 본 연구가 실증적인 차원에서 지역 언론에 내재한 연고 네트워크의 밀도 및 위치 경향을 탐색적 차원에서 조망해보고자 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연고라는 네트워크 특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회자되기는 하지만, 매우 사적이며,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심층 인터뷰에 입각한 비공식적 진술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질적 분석에 입각한 이론 구성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향후 후속 논의와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특성과 변화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새롭게 발견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권장원 (2002).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연고 속성 변화 경향에 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0권 2호, 7~33쪽.
- \_\_\_\_\_ (2004a). 한국 언론사의 관계 권력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164~188쪽.
- \_\_\_\_\_ (2004b). 외주 시장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따른 비공식적 신뢰 구조 개입에 대한 연구. 『방송연구』 제59호, 139~166쪽.
- 김세철 (1993). 지역감정에 대한 언론인의 의식조사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29호, 봄호, 69~102쪽.
- 김성훈 (2004). 노동 시장의 연결망과 공공이익, 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저. 『한국 의 사회적 연결망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용학·손재석 (1988). 미시적 신뢰와 거시적 위험. 『계간사상』, 가을호, 115~132쪽.
- 김일태 (2001).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 학대학 도시과학연구소 엮음.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산업』, 서울 : 삼우사, 105~128쪽.
- 김은환 (2001). 『지역언론 보도의 지역 이기주의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균 (1983). 『비판과 변동의 사회학』, 서울 : 한울.
- 김태영 (2001). 자발적 조직과 사회적 자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과 학연구소 엮음.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산업』, 서울: 삼우사.
- 문종대·한동섭 (1999). 한국 언론의 지역갈등 재생산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 정보학보』 가을, 통권 13호, 7~32쪽.
- 문종대·이강형 (2005). 내부 식민지로서의 지역방송 재생산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 연구』 제5권 2호, 175 ~ 208쪽.
- 박성현 (2004). 『지역분권과 지역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웅 (1999). 경쟁의 사회적 구조 : 기업내 신뢰의 사회적 연결망과 개인의 조직내 성과. 『한국사회학』 33(겨울)호, 789~817쪽.
- 박한우 (2005). 『인터넷과 국제 학술정보 네트워크-하이퍼링크 분석』,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79집, 서울: 집문당.

- 박한우·남인용 (2004). 인터넷 연구의 새로운 방법 :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분석. 『언론과학 연구』 제4권 2호. 69~100쪽.
- 손동원 (2002).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 송호근 (2001). 신사회운동 참여자 분석. 권태환 외 편. 『신사회 운동의 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저 (2004). 『한국의 사회적 연결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영진 (1995). 지방자치 선거와 지역언론의 역할. 『신문과 방송』 1월호.
- 신영미 (1997). 『지역민방의 지역 이슈에 대한 보도태도 연구』. 동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석춘·정미혜·김태은 저 (2000). 동아시아 연고주의와 세계화. 『전통과 현대』 가을호.
- 윤민재 (2004). 한국사회 사회(운동)단체의 연결망과 민족주의. 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저. 『한국의 사회적 연결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41~209쪽.
- 이병혁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연결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과학연구소 엮음.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산업』. 서울: 삼우사.
- 이훈구 (2003). 『연고주의』. 서울: 법문사.
- 장원호 (2001).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전자정부의 기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과학연구소 엮음.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산업』. 서울: 삼우사. 129~152쪽.
- 장호순 (2000). 풀뿌리 지역신문의 역할과 기능.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434~453쪽.
- 최항섭 (2004). 고급사교모임에서의 관계와 상징의 연결망. 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저. 『한국의 사회적 연결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67~320쪽.
- 한준 (2003). 연고조직과 자원조직의 생태학. 정진성·이병천 외. 『한국사회발전연구』. 서울: 나남 출판. 69~93쪽.
- Borgatti, S.P., Everett, M.G., & Freeman, L.C. (2002). *UCINET for Windows*. Harvard, MA: Analytic Technologies.
- Bourdieu, P. (1980). Le Capital Social : Notes Provisoires.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3. 2~3.



- Bourdieu, P. (1983/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s.).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241-258). CT: Greenwood Press.
- Bullen, P., Onyx, J.(1998).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in NSW, Australia, Centre for Australian Community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CACOM).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Burt, R.S.(1992). *Structural Holes :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Coase, R. H.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 95 ~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pp. 1360~1380.
- Lin, N. (2002). *Social Capital :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Quail, D. (2000). *Mass Communication Theory*. SAGE Publication. 양승찬 외 옮김 (2002).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나남출판.
- Newton, Kenneth.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 Scientist*, Vol. 40, No. 5. pp. 575 ~ 586.
- Knoke, D. (1990). *Political Networks : Structural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gers, E. M. (1983). *Diffusion of Innovations ; the third edition*. The Free Press.
- Shoemaker, P.J., Reese, S.D. (1996). *Mediating the message :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김원룡 역 (1997). 『매스미디어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pp. 506 ~ 520.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Wasserman, S., & Faust, F.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N.Y.: Cambridge Univ. Press.
- Weaver, D. & Wilhoit, C. G. (1986). *The American Journalist*. Bloomington, IN: Univ. of Indiana Press.

(최초 투고 및 최종원고 제출 2005.12.1)

## A Study on Personal Network Structure of Local Press Organizations in Korea

Jang-Won Kwo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s & Adverti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paper present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raits of personal network structure shaping in local press organizations of Korea. For this analysis,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ree topics. First, the density traits of personal network structure in the whole of local press organization. Second, the comparison of density trait shaping in personal network structure between press section of local broadcasting stations and local newspaper companies. Third, the positional trait in each local press organization.

To answer the questions, the data concerning commissioners and executive members in local daily newspapers and local broadcasting organizations from the Civic Government to the People's Government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zed. The interconnections of regional(birthplace) and educational(university graduated) aspect were analyzed via methods of cross analysis, density analysis and correspondence analysis.

In brief,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As a result of analyzing cross analysis and density analysis of the personal network based of regional and educational aspect, the numerical value of density was too high on the whole of local press organizations. But, especially local newspaper companies has been showed that was higher density compared with press section of local broadcasting stations. And, positional distance between local press organizations

were showed obviously in the case of regional(birthplace) aspect. But, in case of educational aspect, positional distance were showed obviously between commissioners and executive members.

**Key words :** local press, personal network, network density, positional analysis